

# 건설동향브리핑

CERIK

제990호  
2025. 1. 17.

- 원·달러 환율 상승, 국내 건설산업 부정적 영향 우려
- 2024년 해외건설 수주분석과 2025년 전망

한국건설산업연구원

Construction &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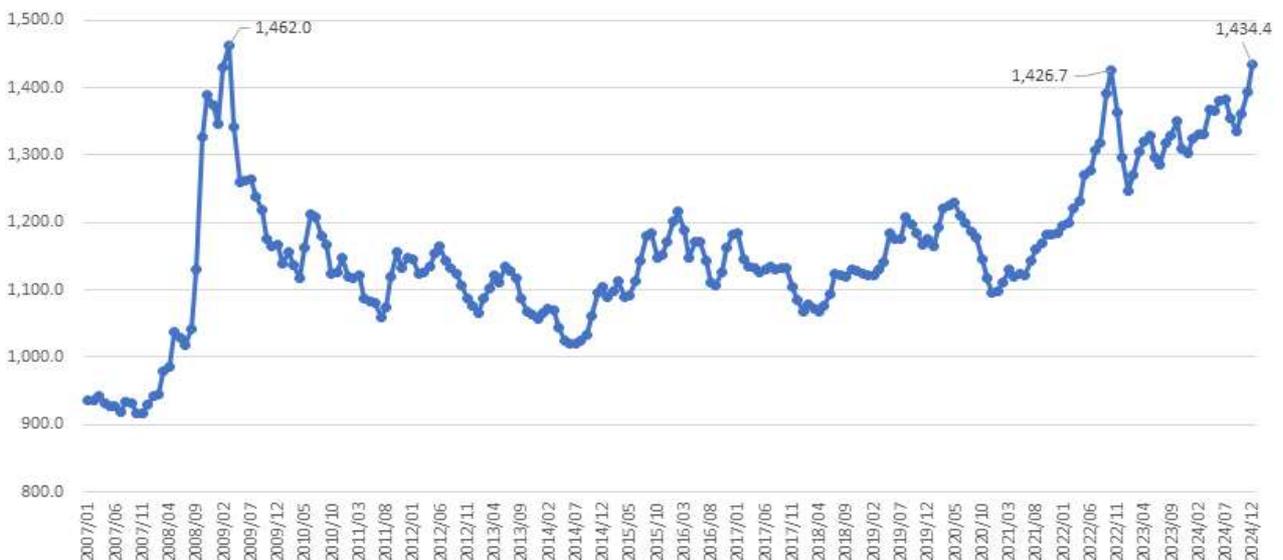
## 원·달러 환율 상승, 국내 건설산업 부정적 영향 우려

- 철근, 석제품, 합판 등의 수입 자재 비용 증가 예상, 공급망 안정성 강화할 시점 -

### 2024년 12월 원·달러 환율 1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 기록, 내수경제에 부정적

- 대내외 불안으로 인해 원·달러 환율은 지난 2024년 12월, 1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인 1,434원을 기록함(그림 1 참조).
  - 지난 2024년 12월 달러당 평균 환율은 1434.4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한 2009년 2월(1,462원)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.
-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지만,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소비위축 등 내수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음.
  - 원·달러 환율 상승은 국가의 통화가 외국 통화에 대해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뜻함.
  -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이 개선될 수 있지만, 수입품에 대한 비용 상승을 동반하며 내수 시장 위축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.
  - 대표적으로 내수 산업인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봄.

<그림 1> 원·달러 환율 추이



주 : 기간대비 평균 원/미국달러(매매기준율)

자료 : 한국은행

## ■ 환율 10% 상승시, 건설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0.34% 비용 상승 영향

- 나라 전체적 수입의존도는 10.7%로, 환율 10% 상승시 1% 정도 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.
  - 한국은행의 2020년 실측표 기준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살핀 결과, 나라 전체적 수입 의존도<sup>1)</sup>는 10.7%임.
  - 2024년 12월 평균 환율과 2023년 12월 평균 환율의 차이가 10.0%임, 같은 기간 대비 수입 물가가 1% 정도 증가하였음을 뜻함.
  -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.
- 건설산업의 수입 의존도는 3.4%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의존도가 낮아서, 원·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상승 압력은 낮은 편임.
  - 한국은행의 2020년 실측표 기준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살핀 결과, 건설산업의 수입 의존도는 3.4%로 건설산업의 경우 환율이 10% 상승하면, 1차적으로 0.34% 정도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.
- 건설산업은 낮은 수입 의존도로 환율 변동에 따른 단기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지만, 건설 이외 타 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인한 2차 영향이 커, 환율 상승 기간이 길어질수록 간접적인 비용 상승 압력이 점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.
  - 건설산업의 국산 중간투입 품목의 산업별 수입 의존도를 대입하면, 환율 10% 상승시 타산업 비용 증가로 인한 2차적인 비용 상승 압력은 0.52%인 것으로 계산됨<sup>2)</sup>.
  - 단기간에 건설산업 관련 수입품에 대한 비용 상승 압력은 낮지만, 환율 상승 기간이 오래될수록 간접적으로 비용 압력이 커짐을 시사함.

<표1> 국내 산업별 수입 의존도

품목	총산출액 (=총투입액, 조원)	수입 중간투입액 (조원)	비중 (수입투입계수, %)	
A	농업, 임업 및 어업	64.3	2.1	3.3
B~C14	광업 및 제조업	1835.8	352.9	19.2
D~E	전기, 가스, 수도 및 하수 등	125.2	31.8	25.4
<b>F</b>	<b>건설</b>	<b>281.2</b>	<b>9.7</b>	<b>3.4</b>
G~T	서비스 및 기타	2250.7	93.1	4.1
	전체	4557.2	489.6	10.7

주 : 대분류 33개 산업을 5개로 간략화  
 자료 :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20년 실측표(생산자 가격 기준)

- 1) 수입 중간 투입액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비중임.
- 2) 이는 증가한 단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경제 전반적으로 수입 원재료 거래 상승으로 인한 2차적인 비용 상승 영향으로 좀 더 중기 또는 장기적인 영향임.

## ■ 수입품 중 철근 및 봉강, 석제품, 합판 등 비용 상승 예상

- 최근 환율 변화로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 품목을 살핀 결과, 수입 철근 및 봉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수입 석제품, 세 번째로 수입 합판인 것으로 분석됨.
  - 국내 건설에 철근 및 봉강은 총 6.04조원 어치 투입이 발생하는데, 이 중 15%인 0.9조원 어치 수입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, 환율 변화로 건설 공사비 상승에 영향이 가장 큰 품목인 것으로 분석됨.
  - 다음으로는 석제품으로 1.77조원의 투입 비용이 발생하는데, 31.2%인 0.55조원의 수입품 거래가 발생하여 두 번째로 비용 상승 영향이 큰 품목으로 분석됨.
  - 세 번째로 합판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됨.

<표2> 건설산업에서 수입 규모가 큰 10대 세부 품목

순위	구분	금액 조원		비중 %	
		총 거래액	수입액	총산출액 대비 수입품 비중*	품목별 수입 의존도**
1	철근 및 봉강	6.04	0.90	0.322	15.0
2	석제품	1.77	0.55	0.196	31.2
3	합판	1.34	0.53	0.189	39.6
4	건설용 비내화요업제품	0.95	0.53	0.187	55.6
5	밸브	0.72	0.39	0.137	53.5
6	조명장치	1.28	0.33	0.118	26.0
7	제재목	1.58	0.31	0.109	19.4
8	기타 일반목적용 기계	0.74	0.25	0.090	34.2
9	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 장비	2.09	0.23	0.082	11.1
10	철강관	4.08	0.23	0.081	5.6

자료 :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20년 실측표(생산자가격기준); 주 : 자재 256개 항목 중 수입규모가 큰 상위 10개 품목임,  
\*수입품 비중은 수입액/건설산업 총산출액, \*\*수입 의존도는 품목별 수입액/ 총 거래액

## ■ 대내외 불확실성 관리를 통해, 원자재 조달 비용을 낮추고 급격한 환율 변화 대응 필요

- 정부는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내외 불확실성 관리를 통하여 기업들의 자재조달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, 건설기업들은 급격한 환율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.
  -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비축을 확대하고 대체 수입국 발굴 등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수준의 국산품 구매도 장려할 필요가 있음<sup>3)</sup>.
  - 기업들은 급격한 환율 변화에 대응하여 환헤지를 위한 금융 상품 가입 등을 고려하면 좋을 것임.

박철한(연구위원 · igata99@cerik.re.kr)

3) 수입 의존도 높은 제품 대부분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는데,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일정량의 내수 수요가 필요

## 2024년 해외건설 수주분석과 2025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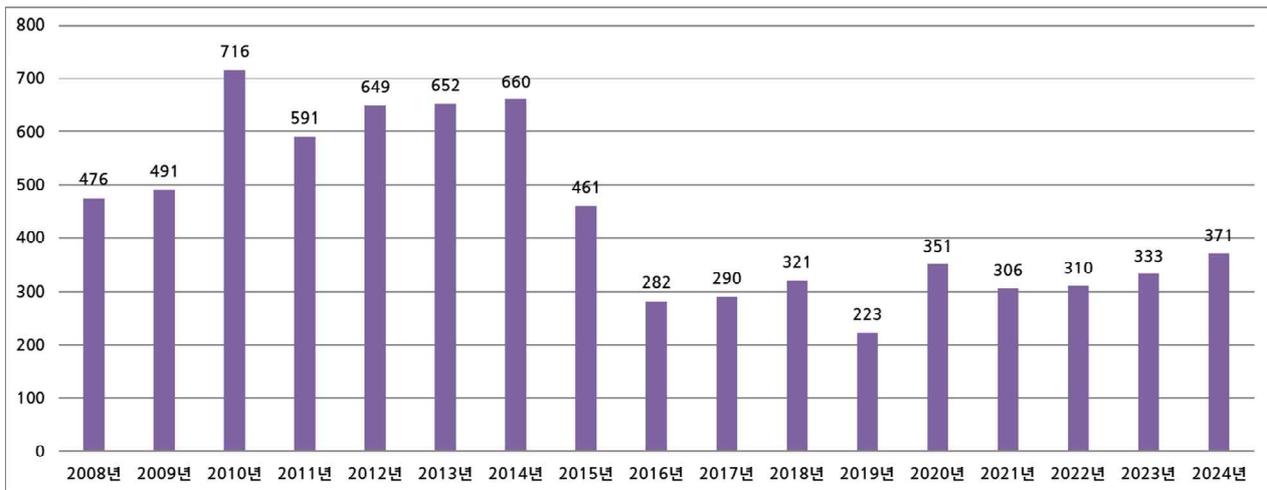
-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, 2025년에도 수주 증가 가능성 高 -

### ■ 해외건설 수주는 2024년에 371억 달러 기록하며 누적 수주 1조 달러 돌파

- 2024년은 해외건설 누적 수주 규모가 1965년 초도 진출 이후 햇수로 60년 만에 1조 달러를 달성한 의미있는 해임.
  - 2024년 실적은 254개 기업이 101개국 건설시장에서 605건의 사업 수주를 통해 거둔 성과로 2023년과 비교해 11.4%(38억 달러) 증가했으며, 누적 수주로는 1조 9억 달러임.
  - 해외건설 수주가 급감했던 지난 2016년(282억 달러)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수주는 309.6억 달러이며, 2019년(223억 달러) 이후 우리 해외건설 수주는 추세상으로 증가세임.

<그림 1> 해외건설 수주실적 추이

(억 달러)



자료 :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

- 수주 형태별로는 원청단독 사업이 215.2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58.0%를, 원청합작 사업이 107.2억 달러로 28.8%를, 하청단독 사업이 48.7억 달러로 13.1%를 차지함. 지역별로 보면 원청단독 사업(215.2억 달러)중 중동지역이 100억 달러로 46.5%를, 아시아가 52.6억 달러로 24.4%를, 유럽이 32.3억 달러로 15%를 차지함.
- 발주 형태별로는 도급공개 사업이 162.7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43.9%를 기록했으며, 도급수의 사업이 105.4억 달러로 28.4%를, 도급지명이 51.3억 달러로 13.8%를 차지함. 도급공개 사업 수주를 지역별로 보면 중동(96.4억 달러)이 59.6%, 아시아(38.2억 달러)가 24.4%를, 유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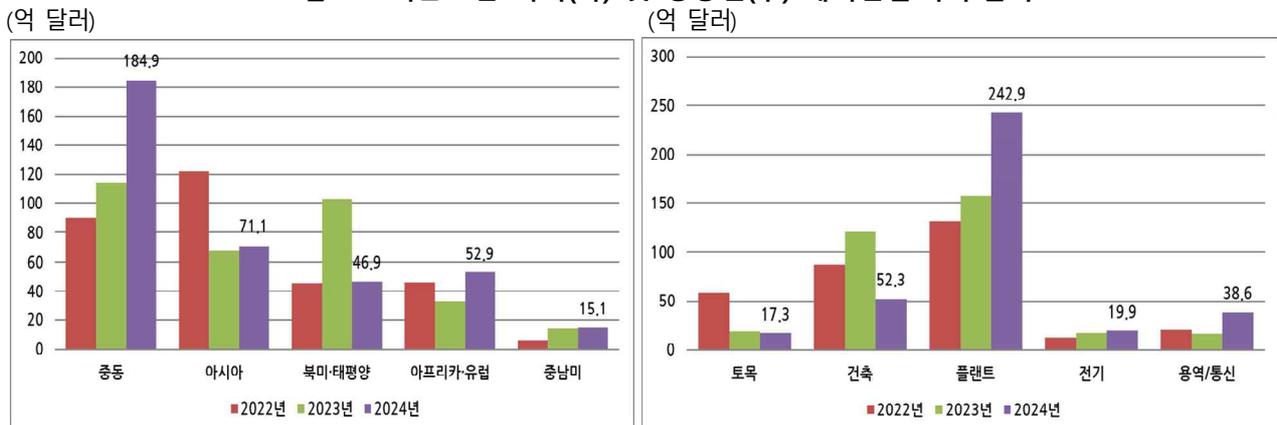
(19.5억 달러)이 11.9%를 차지함.

- 2024년,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구분되는 개발공개·수의 사업의 비중은 전체의 13.9%(51.6억 달러)로 1997년(20.5억 달러 14.6%)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함.

**지역별로는 중동과 아시아가 전체 수주의 69%, 공종별로는 플랜트 부문이 전체의 66% 차지**

- 2023년 114.3억 달러(전체의 34.3%)를 기록했던 중동은 185억 달러(전체 수주의 49.8%)로 2014년(313억 달러)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. 아시아 지역은 전년과 비교해 4.8% 증가한 71.1억 달러로 19.2%를 차지함.
  - 2023년 103.1억 달러를 기록했던 북미·태평양 지역의 수주는 46.9억 달러로 급감했는데, 국내 제조사의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규모가 전년에 91.2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35.8억 달러로 감소했기 때문임.
  - 그 외 유럽은 50.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9% 증가했으며, 중남미 지역은 15.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.4% 증가함.
  - 국가별로는 사우디가 118.9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32.1%로 1위를 차지했으며 카타르와 미국이 각각 47.5억 달러(12.8%)와 37.3억 달러(10.1%)로 2위와 3위를 기록함.
- 공종별은 플랜트 부문이 전년(157.8억 달러)과 비교해 53.9% 증가한 243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65.5%를 차지함.
  - 2023년에 121.4억 달러를 기록했던 건축 부문은 52.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% 감소했으며, 토목 부문은 17.2억 달러로 2023년(19억 달러)과 비교해 9% 감소함.
  - 반면, 용역 부문은 38.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8.6% 증가했으며, 전기와 통신 부문도 19.9억 달러와 0.5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0.7%와 195.4% 증가함.

<그림 2> 최근 3년 지역(좌) 및 공종별(우) 해외건설 수주실적



자료 :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

**2025년 세계 건설시장은 2024년 대비 6.4% 성장한 약 15.6조 달러로 전망**

- IHS Markit에 따르면 중동, 아프리카,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2024년에도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
  - 중동 시장의 경우 7,4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.8% 증가하며 24년(11.7%)에 이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. 2024년 6.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나, 6.6조 달러에 그친 아시아 시장도 전년 대비 7.1% 성장한 7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 - 북미·태평양과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의 건설시장도 3.2%, 7.0%, 9.9% 성장하며 세계 건설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
**<그림 3> 세계 건설시장 규모·성장률 추이 및 전망(좌)과 지역별 시장규모 전망(우)**  
(억 달러) (%, 억 달러, %)



자료 :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재인용

**불확실성 존재 불구, 2025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**

- 2024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하락, 금리인하 지속 등으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함. 이런 추세는 2025년에도 이어질 전망이지만 지역별 편차는 심화될 전망이다.
  - 미국 우선주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2기 트럼프 정부의 공약 실현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, 재정적자 심화, 금리인하 지연 등의 부정적 영향력을 내재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은 최소 2%대를 유지할 전망이다. 반면, 중국의 경기회복 둔화, 미·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교역국의 성장 저해,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등은 지역별 성장률 차이를 심화시킬 것임.
- 중동 지정학 불안 해소, 러시아-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등은 해외건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  - 미국의 증산, 감산 규모 축소 등의 하방 압력이 존재하지만, 안정적인 국제유가 지속은 중동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부문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견인할 전망이다.
  - 우호적인 발주 환경 속에 우리 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 불안 해소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된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방안의 지속 추진 등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함.

손태홍(건설기술·관리연구실장 · thsohn@cerik.re.kr)